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제공

이재명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대전환 통한 대도약 원년’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신년사로 집권 2년 차를 맞는 각오와 올 한해 국정 운영 구상을 담았다. 특히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넘어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구체적인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취임 후 첫 신년사… 집권 2년차 5가지 대전환 방향 제시
 ‘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 “국가 재도약 이끌 필수 전략”

“회복의 시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 열어젖힐 것

“국력의 원천 언제나 국민… 성장·도약 새로운 표준 함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생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며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고도성장을 이끈 과거의 ‘성공의 공식’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가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2면에 계속)

뉴스스

‘10년 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군공항 특별법’ 여야 협력… 2월 국회 발의 될 듯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국방부 ‘유치신청’

무안 지원예산 1조원·중전부지 개발 방안도 큰 산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의 영커있던 실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지난해 말 3개 지자체·3개 정부기관의 극적 합의로 마련됐다.

2026년은 수십년동안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2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여부’ ‘무안주 민 찬·반투표’가 가능좌가 될 것을 보인다.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으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 이익 무안군 우선 확보 후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 광주시·정부 지원·보조를 포함 1조원 무안 지원, 무안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조성, 국가산단 지정, ‘호남항공정’ 신설·‘김대중공항’으로 명칭 변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국내선 이전,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정부 협조 등이 담겼다.

이날의 약속은 광주공항이 ‘송정시 대’를 얻 지 62년, 국방부 평가 결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지 10년만의 성과다.

◇군공항 무안이전 로드맵 10년
 광주공항은 동구 학동에서 1964년 1월 광산구 송정동 현 위치로 이전한 후 여객청사와 유도로, 계류장 등을 설치하며 공항의 모습을 갖췄다. 1966년 2월 제1전투비행단이 사천기지에서 광주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활주로를 민항기와 전투기가 동시 사용했다.

군공항 규모는 8.2㎢(248만평)로 상무지구 2.5배 크기이며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이다.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주도로 진행 된다. 당장 이번 달 예비이전 후보지를 지정한 뒤 2월까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3~6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 7~8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 등은 이 기간 기부대양여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공자기금 등 국가보조 방안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게 된다. 이전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이전 부지 최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공청회(9~10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10~11월),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주민투표·유치신청(12월), 이전부지 최종 선정(2027년 1월) 순으로 진행된다.

무안 군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시행자인 광주시는 적게는 8년, 길게는 10년 가량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월 특별법 통과·주민투표 관련
 군공항 이전의 첫 관문은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 7000억원이었지만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확대할 것을 명문화했다. 산단 조성, 교통망 등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과 민간공항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에서 ‘통합 이전’으로 변경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근택 의원은 “개정안은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2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 된 후에는 이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섭(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